

자연에서 영화와 함께 낭만 만끽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자연, 휴식, 영화'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주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낼 이번 영화제는 '확대'와 '확장'을 통한 '변화'를 예고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화와 삶이 한데 어우러져 '초어름 낭만·휴양 영화제'로 기억될 5일간의 여정, 그 설레는 시간으로 들어가 본다.

더 크게, 더 넓게

지난해 영화제 기간 축소로 커졌던 아쉬움이 다시 기대로 바뀌고 있다.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으로, 기간 연장은 상영 편수와 회차 등 규모의 '확대'는 물론, 상영 공간과 예약시스템, 편의 서비스 전반의 '확장'을 부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

상영작은 총 27개국 90편(국내 39편, 해외 51편)으로, 실제 상영은 20~30대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영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상영관(무주군민의 집 무주상상반디숲)과 상영 회차도 20회차 내외로 확대했다.

이외 상영은 모든 연령대가 영화적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덕유산국립공원에서 35mm 필름 영화를 상영하는 등 각 장소의 특성을 살린 공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번지 않는 즐거움, 무주에서 영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은 김광관 감독의 '호린 창문 너머의 누군가: 라이브'다.

감독은 서울 서촌 골목을 배경으로, 공간 속에 겹겹이 쌓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곁의 평범한 일상을 긴 여운이 남는 영화적 시간으로 바꾼다.

가계호의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인 이태훈 음악감독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답고 섬세한 라이브 연주는 아름다운 등나무운동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설렘과 울림 가득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영화 '호린 창문 너머의 누군가'는 물리적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에 인간이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타자'를 탐구한다. 감독 특유의 정적인 구도와 차분한 색채는 관객에게 여운을 남기며, 대사보다 침묵과 시선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한다.

감각적인 미장센과 내면을 파고드는 서사가 어우러진 '호린 창문 너머의 누군가'는 현대인이 겪는 고독과 소통의 괴리를 조용히 고찰하는 예술 영화다.

다 함께, 날마다 픽(pk)

1년을 기다려 초록 침포 안에 들어왔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다면 좋으련만...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지만 90편이나 되는 영화를 다 볼 수도 없고... 무엇을 봐야 할까? 고민이 된다면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램 매거가 추천하는 영화가 답이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힌드의 목소리, 센터멘탈 밴드, 친숙한 손길 두니아 설립의 모험, 흐르는 여정, 아르코 시크릿 에이전트, 칠들 무렵, 화양영화 특별관 이반리 장만옥 별의 비밀, 데디오 등 많은 작품들을 무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시선이 넘친 특별한 영화 & 영화에 훈을 붙여주는 사람

내달 4~8일 5일간 개최

상영 편수 등 규모 확대

공간·편의 서비스 확장

지속가능 성장 등 새 도약

총 27개국 90편 상영

공연존·산골책방 등

5가지 갈래서 관객객 맞이

올해도 '3무' 축제로 추진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은 이제한 감독의 '다른 이름으로'와 이원영 감독의 '비명', 김정원 감독의 '별과 모래', 유재욱 감독의 '신앙불', 소성섭 감독의 장편 데뷔작 '잠 못 이루는 밤',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 유재인 감독의 '지우려 가는 길', 한창록 감독의 '충충충', 노영완 감독의 '후광' 등 9편이다. 영화제 측은 올해 총 110편의 출품작 중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정했다.

또한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협력해 다양한 스펙트럼과 잠재력을 지닌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이혜리를, 현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서 인상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감독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을 호명했다.

스크린과 OIT를 넘나들며 한국 영화 산업의 흐름을 이끄는 감독 '디렉터즈 포커스'의 주인공은 변성현 감독, 자신만의 고유한 영화적 언어로 한국 영화 미학의 영토를 넓히며, 동시대 한국 영화의 풍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감독, '넥스트 시네아스트'는 손구용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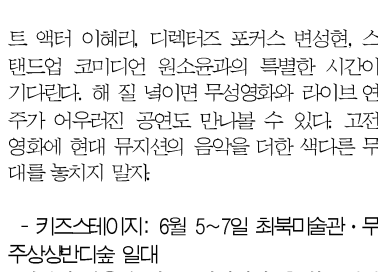
5존 5색 추억 만들기

올해는 공연존·키즈스테이지·전시존·산골책방·플레이존 5가지 갈래에서 관객객을 맞이한다.

영화 외에도 공연, 전시, 책방, 포토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날마다 취향과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영화제를 즐겨보자. 반짝이는 초여름 무주에서 영화 같은 순간이 차곡차곡 쌓인다.

- 공연존: 6월 5~7일 무주등나무운동장

6월의 짙은 녹음 아래 계절과 딱 어울리는 음악공연이 시작된다. 5월 어쿠스틱한 감성의 최유리, 심어송라이터 글(GL), 진정성 있는 보컬의 풀킴이 무대를 꾸민다. 6일에는 캠핑 록 밴드 지소쿠리클럽과 독보적인 음색의 10CM가, 7일에는 밴드 너드캐이션과 불꽃같은 춘기가 공연을 펼친다. 아의 토크에서는 넥스



- 키즈스테이지: 6월 5~7일 최북미술관·무주상상반디숲 일대

어린이 전용관 키즈스테이지가 올해는 최북미술관과 무주상상반디숲 일대로 변경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됐다. '키즈 단편선', '하르코' 등 영화와 '몸너버스 인형극' 등 마켓팅 인형극장, '빨간풍선-신나는섬' 등 공연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키즈마켓·버스킹·내셔널·키즈 워크숍·아의 놀이터까지 아이들의 오감을 가득 채울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 넥스트 액터 전시: '사실 이혜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6월 4~7일 최북미술관서

여덟 번째 넥스트 액터, 이혜리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열린다. 넥스트 액터는 해마다 잠재력 높은 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주목받아 온 이혜

리의 솔직한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무주산골영화제 관객들을 위한 특별 화보와 영상을 단독 공개해 배우 이혜리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 넥스트 시네아스트(Next Cineaste) 사진전 (무주상상반디숲 미주침공간)·전시상영(무주상상반디숲 다목적홀) '풍경을 응시하는 영화 산책자 손구용' 6월 4~7일

한국 영화감독 특집 프로그램 '넥스트 시네아스트'의 두 번째 주인공은 손구용 감독. 풍경, 신체, 응시 텍스트를 키워드로 하는 감독의 작품들을 상영하고, 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진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오후 풍경'(2020), '밤 산책'(2023), '공원에서'(2024) 등을 통해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해 온 손구용 감독의 입체적인 영화 세계도 만날 수 있다.

- 산골책방: 6월 5~7일 무주등나무운동장

책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산골책방은 계절서가: 사계절을 담은 책을 주제로 봄의 생동감부터 겨울의 고요함까지 각 계절을 담은 도서들이 자리를 채운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에센셜 브랜드 더 퍼블리셔의 사계절 향이 더해져 코끝에 닿는 향과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을 한 곳에서 느껴볼 수 있다.

- 플레이존: 6월 5~7일 한풍루

영화·공연·전시·문화 체험까지 섭렵했다면 놀거리로 가득 채운 플레이존에 가보자. 영화제의 여운을 생생하게 남길 차례. 굿즈숍에서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굿즈와 도서가 기다린다.

키보드 키링 대표 브랜드 '무용지용'과 함께하는 DIY숍에서는 무주산골영화제 키보드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포토부스에서는 산골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레임 안에서 즉석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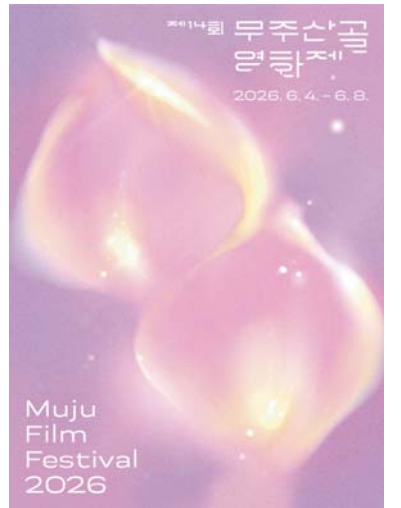
올해도 '3무(無)' 축제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비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의 원조다운 면모로 올해도 관객 편의 확보에 힘쓴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숙박과 등나무운동장 1일 입장권을 결합한 '숙박패키지'를 운영하며, '시의 셔틀버스'는 예약제(티머니 00)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셔틀버스'는 무주관광안내소에서 대집회장까지 왕복 운행(왕복 5천 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영화제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또한 간식 부스는 지난해보다 2곳 더 마련(총 10곳)해 먹는 즐거움까지 배가시킬 예정이다. 다화용기(6종)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고 또한 모든 메뉴는 1만 원 이하여서 입도 주머니도 즐거운 영화제 즐기기가 가능하다. /무주=손흥기 기자



▶ 조지훈 산골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의 포부

올해 '확대·확장' 시도 그 어디서도 경험 못할 특별한 시간 보내게 될 것

"무주산골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극장이 거의 없는 무주의 현실에 맞춰 주어진 공간에 맞는 영화를 선정·상영하는 이른바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맞춘 개방적 중심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변화무쌍한 관객들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대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아예 행사 공간을 재구성하고 키즈스테이지도 확대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 야외상영장을 포함한 전체 행사 공간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무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